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 뉘게로 가오리이까

(요 6:66-68)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님을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늘로 부터 온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몹시 놀 라서 하나둘씩 뒤돌아 설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 1.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너희도 가려느냐'(67절)라고 물으시 는 말씀 속에 담긴 진리는 무엇일까요?

(1)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빨리 떠나 라고 하는 요청

"너희도 가려느냐"는 주님의 질문에는 "결국 갈 수 밖에 없는 너희라면 일찍 가거라"는 예수님 의 심정이 이 가운데 내재하여 있습니다. 이 말을 들던 가롯 유다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주님이 죽는 자리에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 도 마침내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긴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잘 지킬 줄 아 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 몇 가지 반문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몇 가 지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

둘째, 너희가 기왕에 출발하여 옛사람의 생활 을 떠나서 나를 따라온 이 마당에 다시 그 옛사람 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셋째, 너희도 가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과거의 삶은 죄로 가득 채워졌던 삶입 니다. 술 취함, 간음, 도적질, 살인, 미움, 거짓말, 속임, 불의, 자기중심, 교만, 수군수군하는 일, 시기, 험담하는 일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 든 것들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는 불신앙의 죄, 하 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가 죄 중의 죄입니다. 그 런데 그런 과거의 삶으로 다시 가기를 원하느냐 는 것입니다.

넷째, 너희도 세상 이데올로기를 좇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이데올로기들이 있습 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신앙을, 우리가 믿는 성경 을 하나의 이데올로기화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아닙니다. 하 나님은 이데올로기에 속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 니다. 과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가 우리를 영원한 자유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철 학이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종교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

다.

새벽 날개라는 말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의 끝에 있는,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태양이 바다 끝에서 보이기 시작할 때에 그 햇살이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환히 비취 지는데 새벽이 날개를 펼치며 날아가도 그보다 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 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다 끝, 지구 끝 어디를 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도망을 가며,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 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 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 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라"(사 43: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것으 로 완전히 인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가려 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66절).

### 2.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갈 수 없다고 단 호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완전히 붙잡 힌 바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붙잡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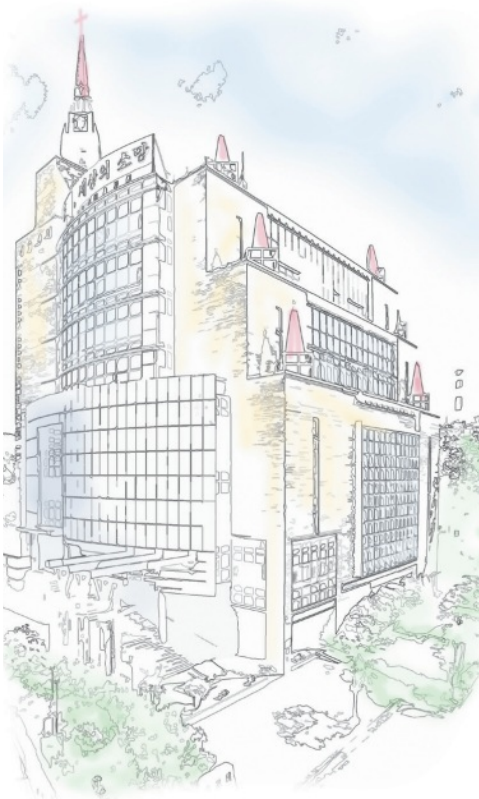
첫째로, 다른 곳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 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므로 다른 곳으로 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만족 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만족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 말씀에 만족을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초동 학 문입니다.

셋째로,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 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을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데 주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내 생애의 위 기요 자살행위요 나 자신에 대한 정직하지 못한 소치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딴 길로 갈 수가 없다는 단호한 신앙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내 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신할 수 없습 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역경 과 핍박과 손해가 와도 주님 외에는 만족이 없습 니다.



# 최종 합의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서울강남노회와 서울교회 합의안

1. 서울교회는 총회계류중인 재항고건을 모두 취하한다.
2. 서울강남노회는 서울교회 손달익 목사 담임목사 청빙 청원 및 장로증원 청원건을 즉시 허락한다.
3. 박노철 목사 측은 그동안의 교회 갈등에 대하여 총회지도 아래 진정성 있는 유감을 표한다.2 서울교회 측은 이후에 어떤 용도로도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다.
4. 서울교회는 국가법원이 박노철 목사 측에 부과한 손해배상금액을 탕감한다.
5. 서울교회와 박노철 목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국가법원과 검찰, 경찰에 제기한 민사, 형사 소송건을3) 모두 취하한다.
6. 박노철 목사는 총회재판국 판결에 근거하여 타 노회로 이명하고 서울강남노회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2021. 6. 21.

서울강남노회 대표 이석수  
 서울교회 대표 김희철, 이영환, 이만호  
 (가칭)광양공동체대표 박노철 목사, 박노철 목사측 변호사 최영하  
 총회외재조정위원회대표 채영남  
 총회임원회 대표 부경락, 류영모, 정영준



지난 21일(월) 총회 총회장실에서 열린 간담회 왼쪽부터 서울교회 당회서기 임상현 장로,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강희창 목사, 부총회장 류영모 목사(가운데), 총회화해조정위원회 이현범 장로, 강남노회장 이석수 목사

“

- 서울교회는 총회 계류 중인 재항고건을 모두 취하한다
- 서울강남노회는 서울교회 손달익 목사 담임목사 청빙 청원 및 장로증원건을 즉시 허락한다
- 박노철 목사 측은 그동안의 교회 갈등에 대하여 총회지도 아래 진정성 있는 유감을 표한다
- 서울교회 측은 이후 어떤 용도로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
- 서울교회는 국가법원이 박노철 목사 측에 부과한 손해배상금액을 탕감한다
- 서울교회와 박노철 목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국가법원과 검찰, 경찰에 제기한 민사, 형사 소송건을 모두 취하한다
- 박노철 목사는 총회 재판국 판결에 근거하여 타 노회로 이명하고 서울강남노회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지난해 10월 교회 건물을 반환받고 재임당함 이후 임시당회장 파송에 따라 서울교회 행정 이 급속히 정상화되면서 곧바로 제3대 담임목사 청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새로 청빙되는 목사님 부임 이전 모든 법적 마무리를 마쳐 거룩하고 성결한 가운데 새 담임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사역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초, 박노철 목사 측과 새로 회복되어 소생하는 교회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활절 이전 모든 법적 분쟁을 종료할 것을 전제로 단계별 화해를 위한 대화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 과정에 제일 우선시 되는 부분이 박노철 목사 측의 여러 거짓 행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였으며 그 사과의 첫 단계로 당시 진행 중인 재정비리 건에 대한 재항고 취하하였는데 박노철 목사 측 내부의 이견 표출로 첫 단계부터 이행하지 못해 이후의 절차는 무산되어 버렸고 그 상태에서 재정비리 재항고가 대검찰청에서 기각되어 박노철 목사 측 스스로 용서받을 중요한 명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 재정비리 고소건이 사법당국의 결정으로 최종 무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채 박노철 목사 측이 스스로 이를 취하하여 종결될 경우, 서울교회 내에 재정비리 건이 분명한데도 마치 화해를 위하여 자신들이 양보하여 마무리 시켜 준 것처럼 호도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어떻게든 새 목사님 부임 이전 아무런 법적 분쟁 없는 목회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 저들 스스로 나서서 재항고를 취하하는 형태의 마무리를 합의한 것인데 저들 스스로의 취하가 아닌 오히려 대검에서 단호히 기각하여 줌에 따라 박노철 목사 측이 그동안 왜곡 선동했던 재정비리가 전혀 근거 없는 자리보전의 수단이었음이 사법당국을 통하여 최종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훨씬 더 당당하고 홀가분한 마음이 된 측면도 있어 이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것으로 봅니다.

한편 서울강남노회는 지난 봄 정기회에서의 장로증원 건 보류처리에 이어 손달익 담임목사 청빙허락청원 건도 저희 측에서 오래전 제기한 서울강남노회 전 노회장 3명에 대한 총회재판국 고소건을 발미로 처리를 미뤄 교회회복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고 당회로서는 새 담임목사님이 마음껏 원하시는 목회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뒷받침 못해 참으로 민망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 교단총회가 나서서 박노철 목사 측은 물론 서울강남노회와의 관계회복을 주선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회로부터 지난 6월 9일(수) 저희와 강남노회 그리고 박노철 목사 측 등 세 당사자의 이행사항이 모두 포함된 합의안을 제시받아 당회는 물론 그동안 교회분쟁 과정에 많은 수고를 담당했던 서바협, 사서함, 스테반회, 권사회 임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지난 주 찬양예배 후에는

여러 성도들께도 위 제시받은 합의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마지막 순간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갑작스런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6월 21일(월) 총회에서 각 측 대표들이 참석하여 장시간의 대화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최종 합의 내용은 우선 저희 측으로서는 현재 박노철 목사 측과 서울강남노회를 상대로 제기되어 있는 모든 소송이나 고발을 취하하고 손해배상금도 탕감하는 내용입니다. 대신 서울강남노회는 당회가 청원한 담임목사 청빙허락 건과 얼마 전 정기노회에서 보류처리하였던 장로증원건을 즉시 허락하여 주고, 박노철 목사 역시 저희를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이나 고발을 취하하고 총회 지도하에 서울교회 대표 앞에서 그동안의 서울교회 분쟁에 대한 진정성 있는 유감 표시와 서울강남노회를 떠나 타 노회로 완전히 옮겨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회는 여러 성도들께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다가 결국 백기투항, 혼비백산의 모습으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박노철 목사 측에 대하여 그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회개하지 않을 경우 초래할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그들의 영적 분별력의 회복과 회개를 통해 어디서든 참 신앙인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해 주고 오랫동안 정성으로 섬기던 교회에서 쫓겨나듯 떠나게 된 것을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오랜 분쟁에 지친 성도들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화에 임하여 왔습니다.

일부로부터 박노철 목사 측의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며 그때까지는 우리 측에 다소의 희생과 고통의 시간이 뒤따르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지만 무한정 저들 스스로의 회개를 기다리며 분쟁 마무리를 늦출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랜 기도에도 응답하시어 우리에게 충분한 법적 승리와 완전한 교회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허락하셨음에도 오히려 우리 스스로 저들에게 발목 잡힌 채 오랜 분쟁의 상처와 아픈 감정에 불잡혀 있고 우리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노회와의 불편한 관계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 묶여 있다는 생각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의 교회 회복만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총회가 제시한 합의안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 합의에 따라 박노철 목사가 상고한 안식년본안 대법원 사건은 1, 2심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어 통합교단은 물론 목사임기제와 관련하여 갈팡질팡하고 있는 한국교계에 커다란 이정표를 제시하는 성과를 얻게 됩니다.

또 박노철 목사 측이 항소한 불법점거 손해



배상건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세상 역할을 통한 교회 접거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패착이었던지를 많은 본쟁 교회들에게 깊이 인식시키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법적 승리뿐 아니라 당면한 담임목사 청빙 건이 소속노회의 허락으로 법적 마무리가 되고 아울러 가을 노회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장로 증원도 곧바로 착수하여 올해 안에 임직의 길이 열리게 되는 등 서울교회 회복을 위한 결정적인 전기도 마련될 것입니다.

물론 박노철 목사는 총회재판국의 출교 판결에 따라 서울강남노회를 완전히 떠나 다른 노회로 옮겨가게 되고 그를 지지하던 교인들 역시 자신들의 결단에 따라 새로운 신앙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 성도님들은 저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으로부터 과감히 자유로워질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로 혼돈의 시간 중에 의의 편에 서게 하였고, 허락하신 여러 상황을 통하여 저희의 걸음이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끝까지 도와주시어 한없이 부족한 저희로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하심만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도,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바라시는 사랑과 긍휼도 아무 조건도 없는 상황에서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혹시라도 우리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들인데 100데나리온 빛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하며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저들에게 충분한 회개 축구의 시간을 주었다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은 충분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동안 저들에 대해 용서할 마음이 조성될만한 충분한 시간도 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과연 저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저희가 가해자인 저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간청하며 구걸하며 억지로 기다릴 필요가 없고 진정성 여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어 그에 상응하는 심판과 보응을 할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저희가 용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용서의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 또 여전히 마음이 심히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오히려 오직 평온한 마음이 조성되기를 위해,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위 합의안을 보고 어떤 분들은 우리는 다 내어 놓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섭섭한 내색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위 합의로 더 얻을 새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위 합의 과정에서 보인 저희의 크나큰 결단은 총회는 물론 교계의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참 사랑과 용서의 모범을 보인 신앙인이었다는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과감한 큰 결정을 내린 저희

를 생각하며 더욱더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쫓아가는 걸 멈추고 나의 일들을 기억하기를 시작하니 인생과 일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오직 저희의 일들만 생각하고 새로운 사명의 시작에 집중할 때입니다.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남은 모든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돈이 개입되지 않는 해결로 한국교회에 새로운 분쟁해결 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무너진 한국교회에 희망찬 내일이 있음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서울교회가 되고 그 중심에 저희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겨 저희 후손들에게 그런 자랑스럽게 회복된 서울교회를 넘겨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이 청빙 된 담임목사님과 함께 오랜 기간 세상 속에 비친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려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전보다 더 열정과 거룩함으로 재무장하여 새로운 서울교회 사역을 힘차게 펼쳐 나아가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며, 합의에 따른 남은 여러 절차가 순조로이 이루어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힘 있게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로 서울교회를 지켜 주신 분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여 주신 분들께 먼저 지면을 통하여 당회원 모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솔리테오 글로리아!!

당회서기 임상현 장로



### 연 인원 11,083명 참여 승전감사예배 : 오늘 찬양예배 시

2021년 홍해작전 대장정이 은혜 중에 마무리되었다. 2021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는 손달익 목사님의 설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 실황중계로, 온라인 예배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6월 25일(금) 오후 4시 현재, 연 인원 11,083명(대면 예배, 예배 실황중계, 온라인 예배 합산)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사모하여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 실황중계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이 홍해를 건넌 승리자들이다.

이제 2021 홍해작전은 끝났으나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며,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특별히 총회에서 결의된 합의가 조속히 실행되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홍해작전 승전 감사예배는 손달익 목사의 설교로 오늘 찬양예배 시에 드린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 초등부 교사모집

초등부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다음세대를 기대하시는 성도들의 많은 지원 및 권고 바란다.

- 이대원 전도사(초등부 교역자)  
010-4454-0391
- 김혜연 집사(초등부 부장)  
010-3923-9913



2021 흥해작전  
**셋째 날 : 6월 19일(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  
 (계 2:8-11)

**1. 서머나 교회**

주님께서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단 한 가지도 부족하다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만 하셨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이며 리디아 주의 수도로 크게 번성한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BC 195년부터 로마의 신전을 건립한 친 로마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로마의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마침 이 시기에 황제 숭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과 교회가 충돌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 순교의 역사는 이후 수백 년 동안 계속되었고, 대표적인 순교자로는 폴리카를 들 수 있습니다.

**2. 주님의 모습**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은 영원하신 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사41:4, 44:6, 48:12, 계 1:17, 2:8, 22:18).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승리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순교할 각오를 하며 살던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이렇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셨습니다.

**3. 칭찬**

1)실상은 부요한 자이다 : 서머나 교회의 환난은 순교에 이르게 되는 박해를 말하는 것이요 궁핍은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가난은 그들의 십자가였습니다. 더구나 박해자들은 믿는 자들의 가산을 약탈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부유한 자들로 인정하셨습니다. 믿음과 영적 자산과 하늘에 쌓은 보물을 생각할 때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2)비방을 견뎌 : 서머나에는 유대인 이민자들이 많았고 그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며 박해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참 유대인이 아니며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칭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며 외식과 위선과 교만에 빠져 있고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대인의 만행을 견디면서 믿음의 참 모습을 견지하였습니다.

3) 담대한 신앙 :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믿음을 잘 지켜 고난을 견디고 환난 중에도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의 ‘십 일’은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십 일이라는 기한을 정하신 것은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라도 끝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4. 권면**

주님께서서는 환난을 이기는 방법으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끝까지 잘 견뎌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록 죽음과 맞바꾸는 시간이 오더라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모든 시험을 감당하라는 권면이십니다. 끝까지 싸워 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5. 이기는 자**

죽도록 충성하여 싸워 이긴 자에게 주님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훗날 서머나 교회는 교회사에 길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기를 끝없이 시도했고 조화와 일치를 위해 노력하며 자기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넷째 날 : 6월 21일(월)  
**핍박과 유혹의 시험을 이기라**  
 (계 2:12-17)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와 유혹이라는 양면의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 대표적 경우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박해의 고난을 용감하게 대응하고 순교로 이겼으나 그 후에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1. 버가모 교회에 임하신 주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12절) 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타나신 것은 버가모 교회의 영적 혼돈을 치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 버가모는 어떤 곳인가?**

주님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 100km에 위치한 곳으로 인근 지역의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모두가 당시의 로마라고 하는 큰 권력의 시달림 속에 있었고 황제 숭배라고 하는 종교적인 열풍 속에서 여러 모로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로마가 버가모를 군사와 정치의 중심지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은 버가모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세속 학문, 퇴폐적 예술, 헬라의 종교들, 로마의 황제숭배와 정치권력의 압력이 혼재된 버가모 교회는 ‘이 세상 임금’에 의한 정치적 박해가 큰 문제였고 이런 정치권력과 결탁한 각종 종교세력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3. 칭찬**

주님께서서는 사탄이 사는 곳에서 박해를 받아 순교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13절의 ‘안디바’라는 사람은 ‘Antipas, 반대하는 모든 자’라는 의미로 순교자 모두를 지칭하는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개인 이름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4. 책망**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한 이유는 발람의 교훈(민 22-25장)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박해에는 용감하게 저항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한 발람의 교훈에 쉽게 빠졌습니다. 여기에 니골라당의 유혹까지 가세하여 성도들을 타락으로 몰고 갔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유혹은 일맥상통하여 예수님은 성도들이 느슨한 영적 자세를 가지면 자칫 영적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5. 회개하라**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강하고 신속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모든 잘못된 것 앞에서는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늘 보장되어 있습니다.

**6.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은 일상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과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는 은혜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요 6:35). 또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신다 함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공과 실패 속에서 귀한 교훈을 얻어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지키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유혹 앞에서 깨어있어 대적하고 분별하므로 신앙의 정결함을 지켜나가 하늘의 상급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날 : 6월 22일(화)**  
**새벽 별을 주리라**  
 (계 2:18-29)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가장 긴 서신을 보내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규모는 작았으나 구성원들의 양상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전통적 신앙을 지킨 주류 그룹이 있었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이탈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쪽도 저쪽도 아니면서 자기들의 신앙과 양심을 지켜나가는 제3의 세력도 있었습니다.

**1. 두아디라는 어떤 곳인가**

버가모에서 동남쪽 64km지점에 위치한 두아디라를 보면 지금까지 북진하던 말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해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의 특징은 공업도시였고, 상업도 매우 발달해서 많은 상업조합들이 있었습니다. 행16장에 나오는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도 두아디라 사람이었습니다. 두아디라는 고대로부터 태양신 아폴로를 섬겼고, 여신 아데미를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으나 바울의 에베소 전도 기간 중에 설립되었거나 루디아의 전도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두아디라 교회에 임하신 주님**

두아디라 교회에 임하신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18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계시록에 단 1회 사용되었으며 두아디라의 주신인 아폴로에 비교할 수 없는 광명의 본체이신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음’은 원수를 짓밟는 강력한 심판주의 모습인데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모든 감추어진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회개하지 않는 악한 세력들을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3. 칭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하시며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하셨습니다(19절). 사업이란 믿음의 실천을 의미하며 사랑 믿음 인내가 어우러진 매우 균형 잡힌 신앙을 가졌다고 칭찬하십니다. 섬김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구제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는 매우 바람직한 신앙요소들을 균형 있게 갖추었던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대조적으로 신앙이 나중에 더 좋아졌다고 칭찬하셨습니다(요 8:7, 요 2:10).

**4. 책망**

20절의 이세벨은 아합 왕의 처로 북왕국 이

스라엘을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종교적 변질, 바알 숭배로 인한 도덕적 타락으로 내몰았고, 의인들을 핍박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그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처럼 활동한 이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적도 없고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신 적도 없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자신을 절대시하며 자신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세벨은 백성들에게 행음과 우상제물을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이를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선지자라 칭하는 자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 금지시키고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님의 강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어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질병과 환난과, 이세벨을 따라가는 영적인 추종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징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5. 권면과 약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낸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게 잡을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곧 영적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신 새벽 별을 주신다고 하십니다(계 22:16).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섯째 날 : 6월 23일(수)**  
**실제적 무신론자들**  
 (계 3:1-6)

세상에는 이론적 무신론자들과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전자는 세상에 있고 후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신앙인의 형식과 절차 그리고 제도적 과정에 순응하지만 실제 삶은 철저히 인본주의에 머물고 세속의 가치와 인생의 자랑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실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데 교회는 실제적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데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한 가지도 칭찬하지 않고 시고 책망만 하시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혹독하게 질책하셨습니다.

**1. 사데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사데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일곱 영이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 일곱 별은 우주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명목만 살아있는 사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 주관자로 임재하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지만 아주 버리시지 않고 더 가까이 오셔서 큰 능력으로 임재하시어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

님의 뜻입니다.

**2. 사데는 어떤 곳인가**

사데는 두아디라 남쪽 50km에 위치한 언덕 위에 세워진 고대도시로 BC 6세기에는 인근 모든 지역을 관장했던 대도시였습니다. 양털의 염색을 최초로 시작한 곳이며 염색과 섬유 산업의 발달로 1세기에는 큰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고 사치와 부도덕이 도시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사데 교회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세기 중반쯤 세워졌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이것은 2세기에 유명한 주석가요 변증학의 거두 멜리토가 사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있던 교회였지만 사데 교회는 도시의 퇴폐적 문화를 방어하지 못하고 쇠락해갔습니다.

**3. 사데 교회의 문제**

사데 교회에는 큰 박해의 흔적도 없고 경제적 고통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또 이단으로 교회가 혼란케 되는 일도 없었고 내분으로 시련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데 교회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 가장 극단적 표현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사데 교회는 무사안일과 선교적 열정의 상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도전보다는 세상과의 평화로운 공존 속에서 안전함만 추구했던 것이 교회의 생명력의 상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4. 주님의 명령**

주님은 사데 교회의 모든 치유와 회복의 시작을 영적 자각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2-3절). 깨어 있다는 것은 신앙인의 근본 자세이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사데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해야 할 일은 영적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은 대충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통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대충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하여 영적 빈사 상태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한 가지도 칭찬할 것 없는 사데 교회를 버리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교회를 소생 시키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5. 약속과 축복**

주님은 회개하고 깨어나 믿음을 소생하면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계 7:13-14)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데 교회에 찾아오셔서 회개와 각성을 요구하시며 주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일곱째 날 : 6월 24일(목)**  
**작은 능력으로 큰 일 하는 교회**  
 (계 3:7-13)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좋은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지 아니하고 영적이며 내재적이며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나가는 선교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교회들이 다 대도시에 위치했던 반면 빌라델비아는 내륙에 위치한 소읍이었고 교회 또한 모든 면에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로 평가되었고 주목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1.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하신 주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본성이시며 속성입니다. 진실함이란 거짓에 대비되는 참이며 불완전에 대비되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 안에 주권적인 절대자로 임하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두신 문은 개인에게는 구원의 문이요, 교회에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두 열린 문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실함 가운데 거하고 온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2. 빌라델비아는 어떤 곳인가**

빌라델비아는 사데에서 남쪽으로 약 50km에 위치하고 버가모 왕국에 속한 도시였으나 사데와 함께 티베리우스 황제 때 로마에 복속되었습니다. 도시 규모가 작은 것에 비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활발하게 활동했고, 유적지도 많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지명은 버가모 왕국의 앗탈루스 2세가 형을 기념하여 명명한 것으로 전해지며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지에 대한 기록도 분명하지 않고 괄목할만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3. 칭찬**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8절)라는 말씀에서 보듯 주님은 그들에게 닥친 환난과 유혹과 시험이 있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한 사람의 배교자도 나오지 않은 것을 칭찬하십니다. 박해의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마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받은 박해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세기 후반의 유대교는 대단한 흥흥기를 맞았는데 예루살렘 멸망 이후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 의해 인근 지역 나라들의 유대인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세력이 확장되

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빌라델비아의 유대인들에 의해 교회를 향한 유혹과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킨 것에 대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4. 권면과 약속**

주님께서는 그토록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하고 시험에 들게 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성도들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9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한 자들이 찾아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사람이 징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스스로 회개케 하심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두 번째 축복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이 오나 이기게 하시며 시험 자체를 면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12절). 이 약속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일꾼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외형적인 모습에 구애받지 말고 믿음 잘 지켜서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덟째 날 : 6월 25일(금)**  
**자기 진단의 착각**  
 (계 3:14-22)

신앙생활은 영적인 자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진단하고, 빠르게 평가하는 일이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자기 진단에 크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17절)라고 진단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데 교회와 같이 단 한 가지도 칭찬 받지 못하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1.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신 주님**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14절)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시다'는 참으로 진실하시다는 의미입니다(사 65:16). 하나님은 진실하실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진리이신 분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심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과 말씀과 삶의 모든 내용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창조의 근본'이신데 창조의 근본이란 그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요 1:3, 골 1:15). 주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빈사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신 것은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 라오디게아는 어떤 도시인가?**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남쪽 64km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 바로 곁에 히에라폴리, 골로새 등의 도시들이 있는 곳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고 모직 공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유명한 의학교가 있어서 안약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하여 AD 60년 대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을 때도 로마의 도움을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재건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설립하고 초기 목회자로 사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골 4:12 이하). 4세기에도 중요한 종교 회의가 이곳에서 모인 것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 기간 영향력 있는 교회로 존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칭찬 없는 책망**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14, 15절)고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가 확실하지도 않고 열정도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정성도 없는 매우 모호한 모습이라고 질책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환난의 역사나 박해나 내부분열이나 이단의 휘방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고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 상태는 매우 흐릿하여 주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이중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셨습니다. 모든 초대 교회들이 가난한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모금을 하고 헌신할 때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일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으로 그들은 자기들끼리의 종교놀이로 침취했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영적인 온도를 높이라고 촉구하십니다.

**4. 권면과 약속**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둘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셋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18절). 불로 연단한 금은 단련된 믿음을, 흰 옷은 회개하여 주의 보혈에 정결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고, 안약을 눈에 바르라는 것은 바른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토해내고 싶고 역겹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어찌하든지 회개하고 새롭게 될 것을 권면하시는데 그 이유는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주님의 권면은 주님과 하나가 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20절).

일곱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온도를 높여 하늘 보좌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약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서울교회!



이겸손 집사  
(2021 홍해작전  
기획분과장)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막막하고 전쟁같은 교회분쟁과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까지 겹쳐 참으로 괴로운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출 14:13)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며 버텨온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홍해작전은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이어지는 서울교회의 훌륭한 전통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새로 담임목사로 청빙되신 손달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라는 주제로 30살로 이제 청년이 된 서울교회가 재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며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6월 6일부터 16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각 처소에서 말

씀과 기도로 동참하였고 17일부터 25일까지는 새벽 5시 본당에 모여 기도하는 특별새벽기도회로 진행되었습니다. 2021 홍해작전 기간 동안 연 인원 11,083명이 모여 반석 위에 교회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로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한 느헤미아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 서울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리더로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야 할지 보여 주셨고 7개 초대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과 나아가야 할 모습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시 27:5)라는 주제 성구를 통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한번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홍해작전 공동기도문처럼 하나님은 교회 분쟁이라는 환난 속에서 우리 서울교회와 성도들을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셨습니다.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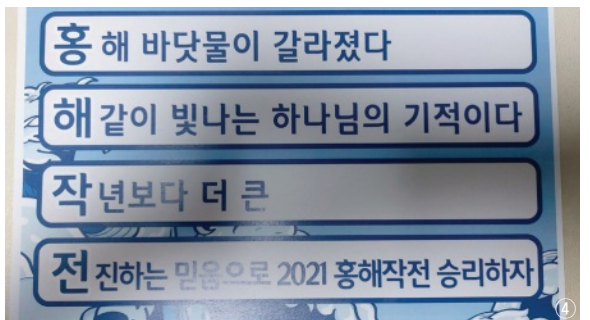
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수고와 고통과 인내를 알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분쟁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우리 서울교회도 본 모습을 찾아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잃어 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5)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이번 홍해작전에서 주신 말씀과 그동안의 아픈 상처를 교훈 삼아 성령의 불로 연단된 정금과 같이 순결하고 좋은 믿음을 갖고 회개의 정결함으로 옷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져서 말씀과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는 흔들림 없는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며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청년 서울교회로 굳건히 세워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홍해작전 교회학교 시상

부서	구분	인원	사랑상	믿음상	소망상	참가상
영아부	그림 그리기	5	오유준	오주빈	최민성	최수아 박지안
유아부	그림 그리기	9	오희열	심기연	양승혜	김서환 박시현 안서은 이린하 정혜슬 차시은
유치부	그림 그리기	2	최아준	이하률		
유년부	그림 그리기	9	김하윤	오수빈	김이환	최무건 한세희 김하민 김하준 임시우 이하은
	4행시	5	한세희	김하준	최지성	김재윤 임시우
초등부	그림 그리기	9	유하연	최무진	노준 노윤	오유민 이재중 한세아 오승아 오선아
	글짓기	1	오선아			
중등부	4행시	13	노준	임하람	한예승 김하진	김연우 임준우 배은준 배은찬 이주호 임세연 주하은 오선아 오승아
	4행시	14	정은채	한예준		김도윤 이인애 임세아 오유나 박주혁 장한솔 이윤익 최시원 조연우 우정균 김은송 김중혁
고등부	4행시	12	최의연	장하늘		유동일 최민혁 소혁 유성결 문영주 임하린 장해윤 장유선 정은지 우정연
사랑부	그림 그리기	1	한승민			
	4행시	12	송재원	최지훈 신준하	류지성 장은석	김신탁 남단비 김남희 이민희 조윤석 공성광 공소윤
일반부	4행시	2	이현정	예완식		
합계		94	13	12	10	59



- ① 사랑부 한승민
- ② 영아부 오유준
- ③ 유아부 오희열
- ④ 사랑부 송재원
- ⑤ 유치부 최아준
- ⑥ 초등부 유하연
- ⑦ 유년부 김하윤



## 2021년 6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6월 20일 주일 찬양예배 시 2021년 두번째 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 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해 짝수 달(격월) 3째 주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천국시민 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

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 위원회 세례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입교·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입교자 : 박주혁 장유선 장해운 정은지 임하린 계 5명
- 유아세례자 : 박시현 박지안 오유준 오주빈 임누리 최수아 계 6명

##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 대상자들

- 이진우 유동연 황수지(육사생도) 한가형 김은호
- 유성혁 감동헌 소준 백승규 최윤학 이강현 유성호
- 심준규 허성강 장하람 옥준용
-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7월 1일(목) 여호수아회에서 설교한다.

■ 개업 : 16교구 김정제 권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명 부동산' 서울 강남구 자곡로 101 래미안강남힐즈 상가 108호

■ 흥해작전 승전 떡 잔치  
떡 제공 : 3-3다락방  
음료 제공 : 김순자 권사 · 이영훈 피택집사

##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6월28일	월	시 103-105		창 1-7	
6월29일	화	시 106-107		창 8-13	
6월30일	수	시 108-112		창 14-19	
7월1일	목	시 113-118		창 20-24	
7월2일	금	시 119:1-80		창 25-30	
7월3일	토	시 119:81-176		창 31-35	
7월4일	주일	시 120-129		창 36-41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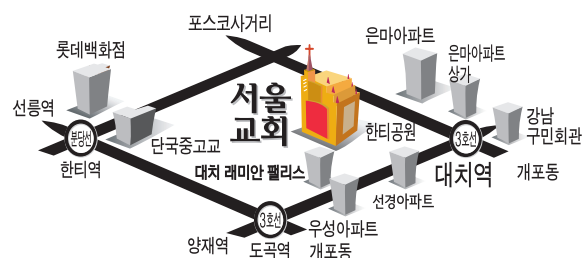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2021 흥해작전을 통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기도에 힘써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 피택집사, 피택권사들이 기도에 힘쓰며, 피택자 훈련을 통하여 잘 준비된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19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옵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